

능동칼럼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기



權 在 琮
편집위원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여러 경로가 있겠지만 절대적 역할은 낳고 길러주는 어머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가까워서 정성으로 보살피는 어머니로부터 무수히 반복되는 말과 표정이 아이의 뇌로 인지되고 차츰 반응을 하면서 희로喜怒를 알아차린다. 물론 이때 주위의 아버지·할머니·형제자매 등 친소에 따른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으며 말은 윤택을 더해간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의 무수한 반복이 3년 정도 경과하면서 아이는 부지불식간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말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위 어른을 깜짝 놀라게 한다. 말을 배우는 어린이를 둔 가정은 이로써 화목하고 다음 세대를 통한 보상적 기대치 행복으로 승화하여 가정에 평화가 깃든다. 이는 사회와 국가의 평화로 이어지면

서 온누리에 퍼지는 평화의 실마리가 가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 그런데 만국 공통어로 군림하는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가깝게는 입시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서는 취업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하여, 멀리 나아가서는 국가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행복의 단위인 가정의 행복을 잠시 덮고 영어로서 얻을 지름길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는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의 첫 단추를 잘못 낀 결과로 아직도 실마리가 제대로 찾아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기러기 아빠’가 사회문제로 대두擡頭되어 있지 않은가. 이는 입시문제와 맞물려 교육정책에서 풀어야 할 난제 중의 난제로 나타나 있다. 목하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무슨 정책이 어떻게 정리되

어 나올지 모르지만 내가 소망하기로는 행복추구의 기초를 망가뜨리는 기러기 아빠 현상을 없애고, 방학 때마다 해외영어연수를 위한 인천공항의 북새통을 줄이고, 사교육의 병폐를 없애고 공교육을 살린다는 취지로 시도하는 이른바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려는 문제가 잘 풀렸으면 해본다. 지난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수업에서 더 나아가 다른 교과까지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몰입식 수업같은 기상천외의 대책까지 나와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지만 소망하기로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같이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어디 그것이 그리 쉽게 이루어질 성질의 것인가. 지각있는 사람의 눈에는 부작용은 생각지 않은 저돌적 한견주의에서 나온 만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언어라는 특성을 곰곰 따져보자.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어머니의 자녀가 학교에서 또래집단의 따돌림으로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는 불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 교실에서는 교사의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 학습부진으로

도 나타난다는 소식을 TV나 신문을 통하여 보고 듣는다. 이런 원인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언어선생인 어머니의 한국어 표현력 부실에서 왔음을 단박에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자면 우선 영어선생이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고 나아가 점차적으로 타교과목의 영어몰입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답으로 나타난다. 이러자면 우선 여러 제도와 여건을 고치지 않고는 이의 실현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식의 해답 없는 논쟁으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특단의 대책으로 그 고리 한쪽을 끊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간 뜻있는 사람의 주장을 모아보면, 첫째 대학입시에서의 영어시험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지금의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둘째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은 끊임없는 반복교육이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흡사 돌아가는 것이 지름길인 것처럼 말이다. 셋째 기존의 교사들을 선불리 영어몰입 수업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인 입시위주의 교사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고 그 방면의 전문가들이다. 이를 하루아침에 영어로 하는 수업의 장으로 내몰면 우물가에서 송능 찾는 격이 되어 교사의 교권에 치명상을 입히고 그로 파생되는 결과는 엉뚱하게도 대한민국 교육 전체가 각살우의 화를 입는 것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교육은 고등교육 기구인 대학에서 찾아야 한다. 적어도 대학의 영어교육과는 물론이고 영문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4년간 영어로 말하고 듣고 쓰는 수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방학을 이용하여 영어권 국가에 어학연수를 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경쟁력 있는 교사가 일선에 배치되면 이들은 경제이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마중물이 4, 5년 정도 선순환하여 이들에게서 영어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이 대학으로 이어질 것이고 남아도는 경쟁력있는 양질의 영어인력은 사회전반으로 파급된다면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보릿고개’라는 말처럼 사전적 용어로 퇴화될 것이고 아울러 공교육이 제자리에 우뚝 설 것이다.

6면에서 계속

집결한 군사는 야간 행군으로 10여리길을 달려 21일 날이 밝을 무렵 경주성 밖에 도착했다. 병사 박진은 먼저 장사壯士들을 뽑아 성밖에 있는 민가에 불을 놓게 하니 화염과 연기가 하늘을 찌르고 불빛이 어지러워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때를 타서 일시에 모든 군사가 성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함성을 지르며 쳐들어가니 적군도 마주나와 혈전血戰이 벌어지게 된다. 권응수 군관은 왜적의 포위 전술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급한 공격은 역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박진 병사에게 설명했으나 병사는 듣지 않았다. 바로 그때 경주 남쪽 언양陽陽 방면에서 적군의 대병력이 경주성쪽으로 진격해 오고 있었음에도 박진은 이를 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을 공격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 박진 군의 후방으로 돌아간 적군이 일제히 공격을 가하니 아군은 당황하여 심한 동요에 빠지게 된다. 당시 왜적은 공격해 오는 병력을 가운데 두고 좌우 양쪽으로 전개하여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이 능사가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왜적의 포위전술은 당시 조선군에서 육해전陸海戰을 막론하고 새로운 전술처럼 소개되던 학익진鶴翼陣(조선에서는 유성룡이 처음 창안했다는 전설로서 군사를 학의 날개 모양으로 전개하여 상대방을 포위하는 전

법)이라는 것과 유사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 전술이 그들의 전국시대戰國時代に 널리 이용되고 있었다. 이는 전략전술을 깊이 연구하거나 왜적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었다. 황차 무장이 아닌 의병은 이러한 적의 전술에 말려들어 패하거나 궤멸되는 수가 많았던 것이 당시의 사정이었다. 정세아 의병장이 이끄는 의병군은 경주성 서쪽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때도 권응수 군관은 깊숙이 들어가면 적의 술책에 말려들 우려가 있으니 신중을 기해 공격하라고 알렸으나 귀담아 듣지 않고 적진 깊숙이에서 이중삼중의 역포위逆包圍를 당하게 된다. 정세아의 병장의 아들 생원生員 정의번鄭宜藩이 세번씩이나 적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 아버지를 구출하였으나 자신은 창에 수십번 찔려 휘하 장사 10여명과 함께 전사하게 된다. 이때 정세아 의병군에서 희생된 장사들의 면모를 보면, 정의번을 비롯하여 생원 최인제崔仁濟·이득린李得麟·이영근李榮根·이호인李好仁·이순복李順福·이정분李廷芬·이지암李之翬·김연金演·전억수田億壽·이득룡李得龍·유복흥柳復興·한득의韓得義·전흥제田興齊·손응현孫應暉·유지걸柳之傑·이일장李日將 등 17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영천 복성전에 임해 권응수 의병대장 휘하

에서 용감히 싸운 인사였다. 이와 같이 왜군의 전술에 말려든 박진 군은 크게 당황한 나머지 모든 병장기를 팽개치고 도망치는 형국이 되었다. 박진은 혼비백산하여 안강으로 도주했고 정세아는 아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장졸을 잃고 급히 물러나게 된다. 이때 왜군은 도주하는 조선군의 후미에 달라붙어 무인지경을 휘젓듯 격살하니 경주의 서천西川 강물이 붉게 물들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정세아 의병군의 희생은 제외하고도 박진 주력군의 전사자만 6백여명에도 부상자 1천여명에 이르는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이것이 정세아 의병장으로서의 의병을 일으킨 이래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투가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권응수 군관은 경주 판관 박의장, 봉사奉事 이방린李芳隣과 함께 경주성 밖 십리쯤 떨어져 있는 계연에서 주장主將이 도망해버린 잔여병력을 모으고 군기軍器를 정비하면서 경주성을 탈환하려는 의지를 다시 가다듬어 다음 공격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때 적군은 승세를 몰아 계속 파상波狀공격을 해와 또 다시 혈전이 벌어진다. 이 싸움에서 권응수 군관이 타고 있던 말이 적탄을 맞아 쓰러지고 박의장은 가슴에 부상을 입는다. 권응수 군관의 아우 권응평權應平은 앞서나가 분전하다 적의 포위망에 들어 위기에 놓이게 된다. 그 포위망을 급히 탈

출하는 도중에 타고 있던 말이 넘어져 사로잡힐 위기에 처했다. 이를 본 권응수 군관은 주변의 장졸을 이끌고 치달려 나가 적 십여명을 죽이고 아우를 구출했다. 권응수 군관은 계속하여 도보徒步로 수하에 있는 군사를 거느리고 독전하면서 좌충우돌로 공격하자 이를 본 아군 장졸이 용기를 얻어 많은 적병을 살상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계속하자 적군은 이윽고 성안으로 들어갔다. 권응수 군관이 이끄는 의병과 관군의 혼성부대는 10여일 동안 성 주변을 맴돌면서 기습공격을 계속했다. 밤낮없이 대담한 기습을 거듭하자 적의 예봉은 꺾

이는 듯했고 박진의 관군과 정세아 의병군의 패전으로 흩어졌던 아군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모여든 군사를 전투편제로 재편성하여 훈련하면서 일대공격을 준비하자 이를 탐지한 적은 그해 9월 9일 성안에 보관되어 있던 많은 식량을 남겨둔 채 밤을 틈타 성을 빠져나가 울산쪽으로 철수하게 된다. 당시 적진에 붙들려 있던 백성의 전언과 포로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전투 병력의 새로운 지휘자가 영천 복성전을 지휘한 권응수 의병대장이라는 사실이 작용한 바라 했다.

담백한 맛의 명문

하산자에게 참새방앗간!

도봉산원조 10년 전통

산두부집
도봉산대등산로입구
등산객논길아팔리고

